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4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80.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

2014. 07. 13.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계15장 1~4의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구절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올바르게 인도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15:5~8]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6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7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8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1. 목사님, 지난 시간에 15장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16장의 서론격인 5~8을 살필 차례입니다.

답: 예, 그렇지요. 5절에 이 일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라는 표현은 계시록에 8번 나오는데요, 4:1, 7:1, 7:9, 9:12, 15:5, 18:1, 19:1입니다. 이 문구는 때때로 오해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4:1에는 이 일 후에 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두 번은 그냥 이 후에 라고 번역했습니다. 4:1에 한 번, 9:12에 한 번입니다. 헬라어로는 모두 “메타 타우 타”입니다. 이 문구는 계시록에 기록한 사건의 전후에 대한 표현인지, 아니면 먼저 보여준 계시 다음에 보여주는 계시에 대한 표현인지 혼동하게 하기 때문인데요, 4:1에 두 번째 이 후에 될 일을 보인다고 하는 말은 계시록 미래주의 해석자들이 키워드로 사용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반드시 사건 전개 시간적 후에 대한 말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요. 이 후에 라는 말이 일곱 교회로 보여준 사건 이후에 라는 말이기 보다는 일곱 교회 프레임 안에서 전개되는 사건을 요한이 계시를 보는 시점에서 표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지요. 15장 5절에 이 일 후에 라는 말도 1~4까지 장면을 보여준 후에 라는 뜻입니다. 그때 보여준 첫째 장면이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은 11:19에도 있습니다. 거기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증거 장막이라고 한 것은 특별히 언약궤 안에 증거의 두 돌 판이 있는 것을 강조할 때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개될 사건이 증거 판의 내용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증거 판은 십계명인데 심판에 표준으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특별히 성전을 증거의 장막의 성전이라고 칭한 것 같습니다. 이미 14장에서 말씀 드렸는데, 계시록의 내용이 성소구조와 봉사와 관련되어 주어진 것을 다시 확실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일곱 재앙을 담은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그 성전에서 나옵니다.

2. 목사님이 계시록의 내용이 성전의 구조와 봉사와 관련되어 주어졌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애청자들이 자세히 분명히 알 수 있게 말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성소구조와 봉사를 통하여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성소는 복음을 구조물로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의 내용을 구조물과 봉사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소는 구원의 복음의 시청각교재라고 했지요. 요16:7~11을 한 번 읽어봅시다.

[요16:7~11]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10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11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구절은 성령께서 오셔서 수행하실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 일을 말씀하셨는데, 죄, 의,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죄는 저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에 대한 말씀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이 왜 의가 됩니까? 그리고 셋째는 심판에 대한 것인데 세상 임금 곧 루시퍼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성소구조와 관계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요2:21]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마1:23)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지요. 이것은 출25:8의 내용입니다. 거기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성소를 지으라고 한 말씀이지요. 그 성소의 원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임마누엘이 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2:21은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구조와 봉사는 모두 예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루시는 구원의 봉사를 설명하는 시청각교재라는 말입니다. 성소 구조에 따라 행하는 봉사가 예수님의 구원의 봉사를 가르치는 것인데, 성소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뜰과 성소 칸과 지성소 칸입니다. 뜰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성소 칸은 죄 사함을 받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지성소 칸은 심판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것을 가르치는 장소입니다. 죄인이 성소 뜰에 와서 죄를 고백하고 짐승을 잡습니다. 죄에 대하여 책망을 받는 것이지요, 제사장은 죄인을 대신하여 죽은 짐승의 피를 받아서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 경우는 온 국민이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개인적인 봉사는 다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온 국민이 범한 죄에 대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면 밖에 있는 죄인들은 제사장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소 안 휘장 앞에서 속죄봉사를 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속죄봉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죄가 사유되었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의로워졌다는 것이지요. 제사장이 피를 담은 그릇을 들고 뜰에 서성거리면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소 안으로 들

어가서 속죄 받아야할 죄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성소 안에서 확실히 봉사하기 때문에 죄인들의 죄가 확실히 사유되고 의롭다고 선언된다는 보증입니다. 그리고 이런 봉사로 속죄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의 결과 죄의 값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성소 봉사의 내용인데, 그것은 속죄를 받은 사람은 의롭다는 선언이 확증되고 속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런 진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성소구조와 봉사와 관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조에 대하여 또 봉사에 대하여 자세히 말할 계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심판의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14:14~16의 내용과 17~20의 내용입니다. 성전에서 천사들이 나와서 곡식을 거두라고 하는 것은 심판으로 의롭다고 확정된 것을 나타내고, 포도를 거두어 포도주 틀에 넣고 밟으라는 것은 심판으로 악하다고 확정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대접을 받은 것은 포도주 틀을 밟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최종적인 것은 천년기 후에 있지만 그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게 될 이 지상의 상태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3. 예, 목사님, 복음이 성소구조와 봉사와 관련되었다는 말의 뜻을 알았습니다. 애청자들께서도 알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많은 장면이 성전과 관련되어 기록되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제 성전으로부터 일곱 천사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답: 일곱 천사가 다 빛난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고 한 것 같습니다. 빛난 세마포는 요19:8과 연결이 됩니다. 거기는 어린양의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7:14 공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되는 것을 나타낸다고 했지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의 핵심이 날마다 어린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마포를 천사들이 입고 있습니다. 어쩌면 속죄 받은 성도들은 재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또 금띠를 띤 것은 1장 13절에 예수님의 차림새가 아닙니까? 이것은 대제사장의 복장과 흡사하기도 합니다. 일곱 천사로 상징된 것은 대제사장의 지성소 봉사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대제사장의 복장을 한 것은 일곱 천사가 다 대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들이 행사가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계시로 보여주는 것은 실제적인 형상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계시적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천사가 나왔다고 실제로도 일곱 천사가 그 일을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일곱 가지 재앙이 차례로 쏟아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계시의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4. 아, 그러네요. 대제사장의 지성소봉사가 끝났을 때에 의인의 의는 영원히 고정되고 악인의 악도 영원히 고정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난 세마포를 입은 것은 의인들의 의가 확정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재앙을 담은 대접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악인의 악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그들은 대제사장이 지성소봉사의 결과를 집행한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말씀이군요.

답: 옳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나오는 것은 성전에서 하는 봉사가 끝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성전에서 봉사한다는 것은 아직도 속죄의 대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대상이 하나도 없으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14장에서 곡식이 익었다는 선언이 더 이상 익을 곡식이 없이 다 말랐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지요. 그리고 포도가 익었다는 것은 약이 더 이상 약할 수 없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라고 했지요. 이제 성전에서 더 봉사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중보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는데, 유대인들이 전하는 말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봉사를 마치고 나올 때에, 지성소에 들고 들어갔던 향로의 향이 다 타고남은 재를 성소 밖에 쏟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일 년 동안 성소봉사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앙을 대접에 담았다는 것은 바로 지성소봉사가 끝났을 때 향로에 재가 담겨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그것을 쏟는 것은 하늘 성소봉사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며 봉사의 결과를 집행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5. 그런데 말씀을 보니 그 대접을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일곱 천사들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왜 생물이 그것을 주지요?

답: 네 생물은 그룹들이지요. 그룹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받들고 있는 생물입니다. 하늘에 계실 때에는 보좌 주위에 시립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행차하실 때에는 보좌를 받들고 날아가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최 측근 천사들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4장과 에스겔 1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시편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룹을 타고 날으신다고 묘사하였습니다.(시18:10) 그 그룹 중에 하나가 대접을 천사에게 준다는 것은 그 대접이 하나님께로부터 전달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6. 그 대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겼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사랑과 자비로 돌보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담은 대접을 쏟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합니까?

답: 목사님이 참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롬1:18) 14장에서 본대로 곡식은 다 익었고, 더 이상 익을 곡식이 없도록 말랐고, 포도도 절정으로 익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결정한대로 대우하는 것만이 남았지요. 그래서 곡식은 빛난 세마포를 입히시고 거두어 곡간에 들이시고 포도는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합니다. 거기에는 섞인 것이 없습니다. 즉 봐 줄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내시는 것은 사람들이 진노를 드러내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악한 자들과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인자하시다고 예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눅6:35) 그런 하나님께서 진노를 드러내시는 것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신상필벌이라는 잣대로 보면 오해하게 됩니다.

7.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진노는 진노일 뿐이 아닙니까?

답: 성경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 성경구절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가르쳐 줄 것입니다. 먼저 신명기 31:16~19을 봅시다.

[신31:16~1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좃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17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요 할 것이라 18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좃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 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어떤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얼굴을 숨깁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삼킴을 당하며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는 형식입니다.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베푸시던 사랑과 자비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결과로 재앙과 환난을 당하여 망하는 것이지요. 이 일곱 대접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기 때문에 임하는 재앙이지요. 다른 성경구절도 찾아봅시다.

[렘2:19]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이 말씀도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또 호9:12을 봅시다.

[호9:12] 혹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떠나시면 사람들에게 화가 미친다고 했습니다. 또 애3:

[애3:43] 진노로 스스로 가리우시고 우리를 군축하시며 살륙하사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 다.

이 말씀도 하나님의 진노는 스스로 가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무리 호소해도 사람들이 완고해서 그 사랑의 호소를 끝까지 무시하고 듣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십니다. 숨으시고 얼굴을 가리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섭리가 없어집니다. 결과는 모든 창조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비록 육체의 생명이라도 제대로 보존되거나 유지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재앙입니다. 여기 대접에 가득히 담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돌보시기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재난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끝이 났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며 중보 하셨는데, 이제는 중보 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그 장면이 바로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아프실까요.

8. 예, 설명을 들으니 하나님의 진노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적 사고방식을 생각하는 진노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진노와 형벌에 대하여 사람들은 많이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오해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답: 예, 이유가 복음을 도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복음은 도덕 이전의 사실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과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을 설명할 때 많이 이야기 했지요. 그런데 루시퍼는 하나님의 종교, 곧 성경의 종교와 신앙이 창조와 생명과 존재에 대한 것임을 숨기고 도덕적 선악에 대한 것으로 오해하게 하여 성경에 계시된 생명론적 사실을 모두 도덕론으로 설명하고 해석하게 해서 오해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하는데 엄청 성공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겔16:6에는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하십니다. 피투성이라고 살라고 하시는 것은 절규가 아닙니까? 다시 겔 18:32을 봅시다.

[겔18:32]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겔33:11]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이렇게 간절히 호소했는데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어 대신 죽게까지 하시면서 부디 사망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으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찌할 도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숨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앙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계시해주시 않았습니까?

9. 그렇군요. 일곱 대접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숨으실 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군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결과가 참으로 두렵겠습니다.

답: 그렇지요. 그것이 16장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아브라함처럼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으로 깨달아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승리의 보장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15:1~4의 내용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사건이 있기 전에 반드시 그의 백성에게 승리의 보장을 하십니다. 은혜이지요.

10. 이제는 마지막 구절이 남은 것 같습니다. 설명하시면 시간이 맞겠는데요.

답: 마지막 구절을 읽고 이야기합시다.

[계15:8]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우선 이 말씀에 성전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속죄봉사를 하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이 성전에 안 계십니다. 중보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찹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장면은 모세가 성막을 세우고 관유를 바르고 헌당할 때에 광경을 생각나게 하고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의 광경도 생각하게 합니다. 그 두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와 성전에 가득했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성전봉사가 끝난 것을 나타냅니다. 연기가 가득하다는 것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런 현상이 있다는 기록을 여러 번 보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시고 숨기시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중보자 없이 그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면 그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과 능력으로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그런 때에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존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떠날 때에도 같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났을 때에도 이미 성도가 된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하며, 예수를 떠나는 일이 단 한 순간이라도 없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확실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가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동안 그분의 사랑을 거절할 때에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것이 진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한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없는 믿음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영광으로 맞이하는 무리 중에 꼭 있도록 성령의 돌보심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